

# 한국 교과서 연구의 등불

## I 교과서 연구에 등불을 켜다

2020년 여름이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발행하는 『교과서연구』가 통권 100호를 맞는다. 1980년대 한국2종교과서협회가 본격적인 교과서 연구의 등불을 밝힌 이래, 근 40년 만에 통권 100호라는 작지만 소중한 기념탑을 쌓게 된 것이다. 『교과서연구』는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초기에 매년 1~2회 발간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연 3회, 그리고 2010년부터는 연 4회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행되면서 명실상부한 계간지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발간 횟수뿐만 아니라 매호 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평균 150면 내외의 분량으로 발간된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발전이 특히 주목된다. 한국 교육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특별기획 주제를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교과서 연구를 넘어 한국 교육 전반에 이론적,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및 정책, 주요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교과서관련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으며, 교사, 교수, 연구자뿐 아니라 출판인, 학부모, 학생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담아냄으로써 교과서 연구와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한국 교과서 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글은 『교과서연구』 통권 100호를 기념하여 오랫동안 『교과서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잡지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교과서 연구에 기여해 온 주요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손명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II. 교과서 연구에 등불을 비추다

현시점에서 볼 때 『교과서연구』의 주요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무엇보다 지난 40여 년간 시의적절한 특별기획을 통하여 한국에서 교과서연구를 선도하여 왔으며, 교과서와 관련된 국내외 여러 분야의 쟁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또한 교과서나 교육과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교과서 연구와 인식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 1. 시의적절한 특별기획 주제 설정과 심층 연구

『교과서연구』는 그동안 특별기획란을 통해 모두 90여 개의 특집 주제를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어 왔다. 특집주제는 보통 5개 정도의 세부 주제로 나누어 해당 주제나 과목,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발표, 토의에 참여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맞춰 해당 교육과정의 주요 강조점을 소개하고, 그에 걸맞은 교과서 개발 방안을 다루는 등 시의성 높은 주제들이 주로 선정되었다. 과연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인가와 같은 바람직한 교과서상에 대한 주제(9차례)와, 교과서 발행 제도와 정책에 관한 주제(8차례)도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검인정 체제를 거쳐 지금은 자유 발행제까지 논의를 진전시켜 옴으로써 한국 교과서 발행 제도의 민주화, 자율화 추세를 앞장서 견인하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가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은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안목과 통찰력을 제고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교과서 정책의 동향과 전망(2011), 주요국 교과서 정책 및 인성교육 동향(2012),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2013), 미래 지향적 교과서관(2014), 달라지는 교과서 구성-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2015),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내의 평가(2016), 미래 지향적 교과서 발행 체제(2017), 교육 환경의 변화와 교과서(2018), 교과서 자유 발행제(2019) 등 적실성 있는 주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그 과정을 지면에 상세히 게재함으로써 교과서 연구와 논의를 주도하여 왔다.

## 2. 교과서와 관련된 논의의 지평 확장

『교과서연구』는 특별기획 말고도 매우 폭넓고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정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연구논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하는 ‘현장교육’, 교육 관련 최근의 이슈와 관련된 인사를 만나 인터뷰하거나 알리는 ‘초대석’, 교과서에 실린 각종 작품들에 얹힌 이야기를 풀어내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 이야기’,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겪는 애환을 담아낸 ‘편집자 이야기’, 그리고 교과연구회나 교사 모임, 출판사 편집인을 만나 취재한 ‘탐방’ 등이 그것이다. 이들 코너에서는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 교과서 발행 제도와 정책, 교육 자료, 최근의 교육 이슈와 연구 동향, 해외의 교육 사례 등 여러 분야를 다룸으로써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 3. 교과서 연구 및 인식의 저변 확대

『교과서연구』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현장 교사, 교과서를 간행하는 출판사 경영인과 편집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또한 교과서 구입과 수정·보완 온라인시스템,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등을 안내하고, 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과서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Ⅲ. 교과서 연구에 더 큰 등불이 되기

『교과서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에서 교과서 연구에 처음으로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관련 분야에 두루 비추어 왔다. 이제 교과서 연구에 더 크고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장기적인 실행 계획 하에 교과서의 역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기적이고 긴급한 사회적 필요와 국가 수요에 부응하여 시의성 높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시의성 못지않게 중요한 장기 지속적인 연구 주제를 하나쯤은 선정하여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학술지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한국 교육계에 공헌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교과서 역사는 크게 한국과

동양, 그리고 서양으로 나누어 그 시초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추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아직 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bible), 혹은 정전(canon)으로서의 교과서 관(觀)을 해체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 교과서는 무오류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 아니라, 학습에 도움을 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 혹은 도구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교과서연구』가 수행해 온 여러 사업과 조사, 연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지닌 경전으로서의 교과서 관을 완화하기 보다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 매체에서 하루 아침에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러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그 선두에 『교과서연구』가 자리해 주길 바란다. 교과서와 관련된 현실과 현상을 뒤따라가며 기술하고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의 변화를 주도하고 견인하는 선도자 역할을 기대한다.

셋째,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교육계를 격렬한 논쟁 속으로 몰아넣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교과서연구』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교과서 관련 논쟁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논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과서 관련 정론지인 『교과서연구』가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침묵은 때로 회피나 수수방관, 또는 암묵적 동의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학회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한국적 특징은 관련 집단의 ‘숙의(熟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단적 ‘관철(貫徹)’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사 국정화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공적인 숙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성찰한 바 있다(성열관, 2016).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교과서연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하여 특별 기획이나 다른 형태로라도 그 전말을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길 기대해 본다.

#### IV.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뚝 서길

『교과서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독보적인 교과서 전문 잡지이다. 지난 40여 년간 연 100호 발행을 이어오면서 양적,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시의성 높은

특집 주제 설정과 심층적인 연구, 교과서 관련 논의의 지평 확장, 교과서 연구 및 인식의 저변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하다.

『교과서연구』는 향후에도 한국의 교과서 연구에 더 크고 밝은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 교과서의 역사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와 연구, 교과서를 경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학습 도구의 하나로 바라보는 교과서 관의 전환에 앞장서는 일,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등을 통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연구』의 발전을 기원한다. 

#### 참고 문헌

성열관(2017). 국가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제1차 국가 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자료집, 3-25.

#### 필자 소개

지리 교육(교육과정과 교과서), 다문화 교육/세계 시민 교육, IB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